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제로페이' 신청하세요

전북중기청, 오늘 소상공인 간편결제 사업설명회 열어 도입취지·결제시스템 소개·추진방법·향후계획 설명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도와 공동으로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간편결제사업(제로페이)'에 대해 전주시 지역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14개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소상공인협단체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오늘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도입취지, 결제시스템 소개, 추진방법, 향후 계획 등, 나경우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의 전반적인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소상공인시장공단의 가맹점 신청 방법, 약관설명으로 진행될

다. 특히, '소상공인 제로페이'는 소비자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 QR코드를 스캔,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가맹점주)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으로,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시 중간단계 뱅카, PG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되는 결제방식이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12억원은 0.3%, 12억원 초과는 0.5%가 적용된다. 제로페이 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하고 12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부산, 인천, 경남 일부)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 초 전국적인 본격 서비스 시행 예정에 있다. 전북지방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제로페이 사업은 내년 초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전북지역에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

업 및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전북 도민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가맹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북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전북지부, 시군 행복센터 등 방문, 가맹신청서 작성,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농신보전복센터, 보증사업 활성화 위한 워크숍 실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북센터(센터장 이민호)는 지난 27일 전주김제완주축협 2층에서 농협은행 여신 담당자, 책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보증사업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위탁공유기관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2018년도 제도변경사항 등을 설명하고 심도 있는 상호 토론을 했다. 한편, 전북관내 3개 보증센터(전북, 정읍, 남원)는 "담보력이 부족한 농림수산업자(개인, 법인)에 대해 10월말 현재 누적 6만9천여건, 순신규보증 4,061억원, 보증잔액 1조 8,300여억원을 전북관내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 농어업인에게 지원,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29일 전주시 만성동 소재 전주중부지점에서 G90(지 나인티) 전북 지역 언베일링 행사가 열렸다.

제네시스 G90 전주시 언베일링 행사 열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는 29일 제네시스를 대표하는 글로벌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지 나인티) 전북 지역 언베일링 행사를 시승센터가 있는 전북 전주시 만성동 소재 전주중부지점에서 개최했다. 지역 VIP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신차 수준으로 재탄생한 제네시스 G90 실제 모델을 시승에 선보인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남원우 전북판매본부장은 "제네시스 디자인 철학 및 최첨단 기술을 G90에 집중적으로 담아냈고, 이를 통해 제네시스는 고객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G9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지난 2015년 브랜드 최초로 국내에서 선보인 초대형 플래그십 세단 EQ900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제네시스는 이날 출시를 계기로 이전 EQ900이었던 차명을 북미, 중동 등 주요 럭셔리 시장

과 동일하게 G90로 일원화했다. 앞으로 제네시스는 국산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며 글로벌 명차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G90에는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지능형 차량관리 서비스 등 최첨단 커넥티비티, 차로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코루즈 컨트롤, 후진 가이드 랩프 등 첨단 주행 편의 및 안전 등 편의성이 강화됐다. G90은 총 9가지 외장 컬러와 7가지 내장 컬러가 지원돼 이를 제약 없이 조합할 수 있고, 엔진별 동일한 트림 운영과 함께 그 외 옵션도 최대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약 2만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하다. G90의 판매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7706만~1억995만원 ▲3.3 터보 가솔린 모델 8099만~1억1388만원 ▲5.0 가솔린 모델 1억1878만원이다. /안주=이중복 기자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무대

전북은행, '문화가 있는 날' 도민·청소년 300여명과 함께 웃음과 감동의 무대 펼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지난 28일 본점 3층에서 문화에 관심있는 도민과 청소년 300여명이 참석해 제14회 '2018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공연은 (사)전북문화마을의 전연희극극 '히히랑락'으로 1960년대 입실 필봉마을 배경, 사라져가는 노동요와 60년대 유행가, 흥겨운 농악이 한 데 어우러져 40여명의 배우진과 다양한 무대장치로 관객들에게 현장감 넘치는 공연을 선사했다. 특히, 지금은 사라져가는 모내기

장면과 한성 유랑 소단의 공연, 꽃상여 나가는 장면 등 현실감 있게 재현, 어르신들에게 젊은 날의 향수를, 아이들에게 사라져가는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참석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관객들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소품의 세심함에 놀랐다. 지루할 틈 없는 스토리와 에너지 넘치는 배우들의 연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부모님과 함께 한 자리는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감동이 있는 무대였다"고 관람 후기를 밝혔다. /김영태 기자

노시형 전북은행 사회공헌부장은 "전북은행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지역문화계층에 문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도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공연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하고 문화예술로 더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성, 대중성을 겸비 한 공연팀을 선정해 2015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한국 취업자 역량

OECD 22개국 중 18위

노동시장에 진입한 한국 취업자들의 역량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학력 외에는 다른 자격제도를 보지 않으며 취업 이후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한국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29일 서울 중구 노보텔에서 열린 한국 OECD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OECD 22개 국가의 취업자 역량을 비교한 결과 일본이 297.7로 가장 높고, 핀란드(294.5), 네덜란드(289.8), 스웨덴(286.8)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71.9로 18위에 머물렀다. 박사는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이 잘 되고 임금을 많이 받고, 개인 역량이 높을수록 고용도 좋고 임금이 많이 받는다"며 "그러나 한국은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이 더 잘되고 임금을 더 받는 것은 맞지만 개인 역량이 높다고 해서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22개 국가 중 한국만 이런 독특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에서는 학력을 제외한 다른 자격제도는 잘 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서 채용하고 선발하고 평가보상, 승진 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뉴스

전북지방중기청, 내일 중소기업 가족과 함께 하는 4차 산업혁명 체험 캠프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지방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 참여, 비즈를 지역공공프로그램 '중소기업 가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체험캠프'를 12월 1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이하 전북기계공고)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체험캠프는 도내 중소기업 재직자 중, (초, 중, 고등학생) 자녀 동반한 직원 대상, 비즈를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복리후생 제공을 통한 장기근무 유도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선도비즈클린 전북기계공고 4차 산업혁명 체험관을 방문, 4차 산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3D 프린터 등 전시품과 장비를 견학하고 조별 활동을 통해 로봇 코딩, 드론기초 교육, 3D프린팅, VR기기 만들기 등을 순환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초보적인 창업교육을 접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가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체험캠프'를 12월 1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한다.

며 기업이 정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것이 빈번한 중소기업에게 이 행사를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

기업이 운영상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자경 주무관 (063-210-641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